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自己教育

一

우리는 此의 靑少年에게 自己教育을 强調하고저 한다。自己教育의 第一要諦는 克己에 잇다。理性이 目標가 되고 意志가 힘이 되여 모든 感情 又는 物慾을 이기고 나가는 狀態를 가르처서 克己라고 한다。古來로 聖賢 又는 偉人이라는 이름을 어든 사람들은 다 克己로 成功하엿고 이와 反對로 마음의 統制가 업서 그날그날을 사라간 사람들 가운데서는 偉人이 나본 前例가 업다。論語에 仁이라고 한것, 孟子에 遏人慾存天理라고 한것, 大學에 明德이라고 한것, 中庸에 誠이라고 한것, 예수敎의 新約全書에 愛라고 한것等은 다 克己의 目標를 말한것으로서 自己教育의 要諦를 말한것이다。

二

克己는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제 自身이 꼭 지켜 갈 法律을 제가 定해 가지고 그대로 꼭꼭 實行해 가는 狀態를 말하는것이다。그러므로 克己生活을 하고저 하는이의 第一着으로 定해야 할것은 座右銘이다。사람다운 사람노릇을 하려면 어떠케 行動하며, 어떠케 말할것인가를 잘 생각하야 言行에 關한 自己法律을 制定할 必要가 잇는것이다。옛날의 偉人은 다 제가 지켜갈 法律을 自身이 定해 가지고 꼭 지켜오든것이엇다。마음을 爲해서는 心戒이 잇고、行動을 爲해서는 行儀이 잇고、말을 爲해서는 言議이 이는것이나, 이런 모든것을 誠實히 생각하야 自己教育의 目標를 定하는 意味로 누구나 다 모저 座右銘을 만들 必要가 잇슬것이다。

三

그다음으로 必要한것은 誠意와 부즈런이라는 두가지 이다。사람은 社會的動物이라 남에게 對한 誠意는 더욱 必要하거니와 自己自身에 對한 誠意도 亦是 그만 못하지안케 必要한것이다。남을 對해서나 自己自身에게 對해서나 苟且함이 업는 言行, 거즛이 업는 言行만을 지켜어가는데는 무엇보다도 誠意가 絶對로 必要한것임을 이저서는 안될것이다。心的狀態인 誠意가 身體의 行動으로 나타날때에 그것을 우리는 부즈런이라고 부른다。그러고 부즈런이란 單純히 行動의 時間的繼續만을 意味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目標가 잇서 가지고 그目標下에 統制된 行動이 時間的으로 中斷업시 자조 繼續되는 狀態를 意味하는것이다。故로 부즈런은 此를 旅行에 比해 말하면 目的地를 向하야서의 行步에 比할것이다。一步一步가 모여서 目的地에 到達하듯시 부즈런의 繼續은 사람을 成功의 頂에 到達시키는것이다。

四

自己教育의 第三要諦는 讀書에 잇다。사람은 讀書를 通하야 數千年前사람에게 배우고 同時代의 數萬里相隔한 사람에게 배울수가 잇는것이다。讀書에 依하야 知識이 되어지는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德의 修養도 讀書의 힘에 依하는바가 만코, 身體의 鍛鍊도 前者의 힘에 依하는바가 만타。그러고 言行에 잇서서 誠意와 부즈런이 必要하드시 讀書에 잇서서도 亦是 盡信書면 不如無書라고 亂讀은 禁物이다。옛날 孟子는 「盡信書則不如無書」라고 한것이 잇거니와 이제 이 말을 비러서 말해 본다면 아모 글이나 함부루 막 읽는다면 처음부러 讀書안는것만 못한수가 만타。古書를 通해서 나뿐 일을 배운사람이 얼마나만흔가를 생각해보면 이理致를 곳 알수가 잇슬것이다。그럼으로 讀書에는 반드시 무슨 種類의 글인가? 또는 누가 지은 글인가?를 보아서 選擇할 必要가 잇슬것이다。이것을 가르처서 우리는 自己教育이라고한다。

一國相對交涉에는 米國은 不應方針
日本의 太平洋平和會議提議에 뉴욕타임스紙所論

【華府廿四日發同盟】華府、倫敦兩海軍條約滿期失效에備하야 有田外相이 太平洋에잇서 平和政策을提出하고 米國政府를喚起하엿다는 報道는 全米에異常한反響을喚起하야 뉴욕타임스紙는第一面에 右報道를揭載하고 共鳴을示하고잇는데 太平洋問題에對하야 比島의地位保障, 防備制限條約으로부터 中國領土保全等條는 廣汎한範圍에 亘하야 米國政府로서는 關係各國政府와의 全面的商議를期待하고 一國政府와의 「變形的」交涉에는 全然贊成치 아니할方針이다 또何等準備的工作도업시단번에 國際會議를 招請하는것은早急하다는意向을 漏洩하야 今後에 올太平洋無條約狀態에對處하는 米國政府의 方針에 對하야 當局은 左와如한 意向을가지고잇는模樣이다

現行條約이 滿期失效할境遇는一九二五年의 華府會議同樣 太平洋問題를 俎上할國際會議가 開催될氣運이올것이아닌가 推測되는데 如何間 外交機關을通하야 準備工作을 하지안코는 아니될것이다 따라서 只今부터 會議를 열가그與否를 云云하는것은 尙早이다 何如間 太平洋의 諸懸案은 廣範圍에亘하야 米國政府로서는 日本及其他如何한 一國이라도 單獨으로 交涉함을 避하고 一切의 關係各國間에 太平洋의 平和機構確立에 對하야 考慮하고자 생각한다 그리고 太平洋의 關係國으로서는 蘇聯邦도 加入될것이다

關稅委員會 政府原案承認

【東京電話同盟】滿洲에對한通商擁護法撤廢에關한 關稅調査會委員會는 二十六日午後五時半首相官邸에開催, 政府側으로부터 日滿交涉의 經過를報告하고 近近同交涉의成立에依하야 滿洲가日本品壓迫의 措置를撤廢함과同時에 擁護法發動에關한 勅令을廢止하고 日滿間通商關係를 正常化하고자하는 意向을 述하엿는데 委員會도 此를 承認함과同時에 新協定에 依한 羊毛輸入을 統制하기 爲하야 輸出入에 關한 許可制를 新設하기로決定 政府原案대로 答申하고 同六時半 散會하엿다

漁業條約效力을 一個年間延長
暫定協定近日中調印

【莫斯科二十四日發同盟】莫斯科駐箚 重光大使는 스토모야코프次長과 協議한結果 現行漁業條約을 一個年一九三七年十二月三十一日까지 延長하기로 意見이 一致하엿는데 또 協議한結果二十四日에 至하야 暫定協定草案을 脫稿하엿다고 解釋된다 타스通信社는 右報道를確認 二十四日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消息通의 情報에依하면一九三七年에잇서서 暫定漁業制度를 規定한 漁業暫定協定草案에對하야 蘇聯外務人民委員部와日本大使館과의間에 意見一致를보앗다 最近日中右協定에 調印이行하게될것이라고 期待된다

效力延長議定書 御諮詢手續執行

【東京電話同盟】廿六日閣議에서 政府는 日蘇漁業條約 效力延長에 關한 議定書의 樞府御諮詢手續을 取하엿다 따라서 樞府에서는 案의 御下渡를 기다리여 審査委員會를 開하야 廿八日午前 臨時本會議를 열고 審議할터인데 政府는 樞府의 可決을 기다리여 即時 文書閣議를 열고 上奏御裁可를 仰하야 即日 有田外相으로부터 重光大使에 訓令을 發하야 二十九日 莫斯科에서 調印하기로 될 模樣이다 그리고 此議定書는 日蘇漁業新條約調印까지의 暫定的協定인데 現行條約의 效力을 一個年間延長하는것이다

中央全體會議 一月下旬開催
張學良의主張容認?

【南京二十六日發同盟】別電、一月下旬에 開催할 中央全體會議에 附議될 主要議題는

一、國民政府의改組
一、內外政策方針의改革
(言論 出版의 自由等을 包含함)

等 廣汎한 範圍에서 張學良의 主張을 容認하리라고 觀測되며 그리고 行政方針改革에 對하여는 當然 抗日强化政策도 討議에 오르리라고 觀測된다

張學良氏 謝罪文發表

【南京二十七日發同盟】張學良氏는 二十六日 蔣介石氏에게書翰의形式으로 中央通信을 通하야 罪를 기다린다는 旨의 左와如한 謝罪文을 發表하엿다

余는 元來粗野하야 無思慮하게도 規律에違反하고 今回貴下에對하야 不敬한大罪를 犯하엿다 故에 恥辱을 참고 來京, 衷心으로 貴下의譴責과處罰을 받기를 願하는바이다 余는 自己의 當然히받을罪를 潔白히 바등으로써 綱紀를振肅하고 將來의 警戒로 하고자 希望하는 同時에 我國에 有利한것이잇다면 余는 萬死를辭하지안을 覺悟이며 貴下의私情에 關渡하는바업기를바란다

蔣氏談話發表

【南京二十六日發同盟】蔣介石氏는 二十六日夜中央通信을 通하야 左와如한 書面談話를發表하엿다

余는 二十六日 飛行機로來京하엿스므로 자못 疲勞하여잇스므로 詳細한 見解發表는後日로미루고 余는 西安事件에對한 見解는 이미西安에서張學良楊虎城兩人에 與한 訓話中에述한바와갓다 今後一切問題는 中央의 指示에 따를것이다 余는 軍隊를 統率하는身分이면서도 率導가 不充分하야 드되여 今回 事變을이르켓다 기피責任을 感하는바이다 多幸히中央 首腦者의指示가 適當하야 全國軍政當局도 亦是그職責을 다하야國家를不當의 安定에回復 시킨것은진실로 欣快에不堪한다 또市民及 內外의同胞同志의 示한 熱烈한關心과 友邦朝野言論界輿論의 同情에對하야는 大

英佛兩國이率先해 植民地返還考慮
西內亂不干涉、新로카르노調印을條件으로 獨逸爆彈宣言의制先

【巴里二十六日發同盟】英佛兩國政府는 히틀러總統의「爆彈宣言」이 植民地要求에 잇는것을 豫知하고 機先을 制하야 그要求에 對應코자 目下 共同提案에對하야 推敲中이라고 漏聞한다 即 델보外相은 二十四日 巴里駐箚獨逸大使 웰첵氏와의 會談에서 獨逸政府의 西班牙叛軍援助의眞目的이 西班牙國內의 鐵銅鉛及 망강을 엇기爲한 事情인것은 佛國政府도 承知하고 잇는旨를 示唆、獨逸政府의 內亂干涉停止에 對한 代償에 對하야 打診하엿다한다 英佛兩國의 對獨共同提案이라 解釋되는바는 如左하다

一、獨逸政府가 西班牙叛軍에對하야 軍事的援助를 停止한다면 英佛兩國政府는 그代償으로서 獨逸政府에 對하야 歐洲에 잇는 天然資源供給의 途를講究할것이다
一、또 集團的安全保障에 關한 新로카르노條約을 締結하고 同條約下에서 獨逸政府에 植民地를 與하는方途를 試할것이다

一部에서는 佛國政府는 카메룬 토ー고ー等의 植民地를 獨逸政府에 返還할 決意가 잇다고까지하나 아직 意測의 域을 脫치 못한다 如何턴지 佛國政府가 獨逸의 植民地 要求를 考慮하고잇는것은 事實임으로 英國政府와의 共同提案이잇슬 境遇 獨逸政府가 無碍히 此를 拒否할 外交交涉의 餘地를 封할과가튼 態度에는 나가지안흘것으로 推測된다

獨逸汽船파로스號 西班牙政府拿捕
拿捕船奪回次로獨軍艦急航 獨西兩國關係急迫乎

【伯林二十六日發同盟】獨逸政府는 二十六日午後 獨逸汽船파로스號(九九七噸)拿捕事件에 關하야 左의 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獨逸汽船파로스號는 빌바오港附近에서 西班牙赤色軍艦에게 拿捕되엿다 政府는 此에對하야 必要한 手段을 講究할 方針이다

【伯林二十六日發同盟】獨逸半官通信社데ー엔·베ー·社는 二十六日午後西班牙政府軍 巡洋艦의 獨逸汽船拿捕事件에 對하야 如左히 發表하엿다

西班牙赤色軍艦은 二十六日빌바오港沖의 西班牙領海外에서 獨逸汽船파로스號를 拿捕, 此를 빌바오港에 抑留하엿다 獨逸政府當局은 곳파로스號釋放을 爲하야 一切의 必要한 手段에 着手하엿다

【伯林二十六日發同盟】獨逸政府는 파로스號拿捕事件에對하야곳 實力救濟方法을 斷行하기로決定 獨逸軍艦數隻은 二十六日全速力으로 現場에 急航中이라고傳한다 目下西班牙領海에는 獨逸軍艦六隻乃至 九隻이잇는데 最近은主로 지브랄탈, 마라가及 산세바스찬方面에 碇泊하여잇섯스나 西班牙政府側이 파로스號를 平和裡에 釋放치안는 境遇에는 事態는 惡化할 念慮가잇다

隨員도無事 모다洛陽에到着

【上海廿六日發同盟】中央銀行着電에 依하면 蔣介石氏와 함께 西安에 監禁되여 安否가 念慮되든 內政部長 蔣作賓氏 軍事參議院長 陳調元氏 侍從室主任 錢大鈞氏 軍政部次長 陳誠氏 蔣方震氏 第一軍長 陳繼承氏 第十四軍長 衛立煌氏 第十三師長 萬耀煌氏 曾擴情氏等은 中央과 張學良氏와의 妥協이 成立된結果 모다 張學良軍의 손에서 釋放되여 廿五日夜 隴海線이 修理되는 同時에 臨時列車로 西安發 廿六日午前 洛陽에 安着하엿다한다。

世界週報

蔣介石氏歸還

蔣介石氏、宋美齡夫人、도날드氏三人은 二十五日南京時間午後五時三十分 飛行機로 洛陽에到着하엿다한다。이는宋子文氏、閻錫山氏、孔祥熙氏等의 妥協斡旋이奏效되엿기때문에 張學良이蔣氏를 釋放하엿다는데 이제 그妥協內容을들건대 다음과갓다한다
抗日政策의强化 張氏의下野外遊、張氏所屬軍을 西南軍에編入시킴、中央은 張氏의 內政責任을짐、張氏所屬軍에 軍資金의 外交에關한主張을 充分히考慮할等이라하는데 이는結局 張學良에 中央에 屈服하는外에 아무것도 아니라 한다。蔣氏는 再次 中央最高幹部會議를 열고 收拾策을 講究하리라 하며 一部에서는 蔣氏亦是 下野할런지 傳하는바와가티 注目處이다。

張學良氏外遊乎

西安쿠데타後 宋子文氏 閻錫山氏等의 斡旋으로 蔣介石氏를 釋放한 張學良氏는 今番쿠데타가 如何한目的에서나왓던지間에 中國을 統一하여가는 中에 重大汚點을 남긴것만은 事實이오 國民의 非難이 殺到한만치 責任을지고 下野하야 外遊한다하며 只今그外遊準備를 進行中이다。

第七十議會開院式

二十四日 召集하야 即日로成立된 第七十回議會開院式은 二十六日 貴族院에서 天皇陛下親臨下에 擧行되엿다

日滿通商擁護法撤回

幾多의 波瀾을겪고나아온 日滿通商交涉은 그後交涉이 成立되어 드되어 二十六日開催의 關稅調査會에 附하야 正式으로 通商擁護法을 撤廢하기로 決定하엿다

現行日蘇漁條延長

懸案이 日獨防共協定의 成立을 口實로 調印을 遷延시켜오든 日蘇漁業條約은 重光駐蘇大使와 스토모니야코프次長과의間에 屢次折衝한結果 本條約은 爲先調印을 後日로 미루드라도 暫定的으로 現行條約을 一個年동안 延長하기로 되엿다한다

伊、에國合倂承認

英佛兩國政府는 歐洲의 平和를 維持하기爲하야 伊國의 에國合倂이 既定事實이라 認定하고 이것을 承認하도록 各國政府에 慫慂하기로決定하엿다한다

海軍無條約時代出現

華府倫敦兩海軍條約은 며칠남지못하야 마침내 明年부터 無條約第一年을 마지하게되엿는데 英國海軍은 年內에 戰艦킹죠ー지五世號及 O級巡洋艦五隻을 起工하고 米國은 驅逐艦四萬噸級 超過巡洋艦四隻을 保有하고 日本도 驅逐艦一萬一千噸及 潛水艦一萬五千噸을 保有하기로되엿다 따라서 이제야 海軍縮條約規定은 一片의 空文化하고 明年부터 無條約海軍時代를 出現할것이다

孔副院長聲明

【上海二十六日發同盟】行政院副院長孔祥熙氏는 二十六日 午後 左의 聲明을 發하엿다

蔣介石氏의 自由回復에 對한 全國的歡喜는 民族更生의明朗한 象徵이다 余는 西安事變勃發以來 二週間에 亘하야中國及外國側의 信友界가 國民政府의 爲替及、各市場의 安定策에 對하야적지아니한助力을與한것에 衷心感謝를 表한다 又今回事件에 遭遇하야 發揮된 我國 國民一致의 團結力에 對하야 諸外國政府大公使在留各外人으로부터與한 實實의 聲援을 주고 자못欣快에 不堪하는바다

蔣作賓部長洛陽行

【上海二十六日發同盟】二十五日夜釋放된 內政部長蔣作賓氏軍政部次長陳誠氏等一行은 二十五日夕陽中央軍張學良軍對峙中의 赤水까지 渡送되여 同地에서 中央側으로부터 出迎한 范崧甫氏에 引渡되여 即時 洛陽에들어온것이 確實이되엿다

張楊兩氏에對한 蔣介石氏訓話要旨

【南京二十七日發同盟】蔣介石氏는 二十五日西安을 出發함에當하야 張學良、楊虎城兩氏에 對하야 長時間에 亘한 訓話를行하엿다 此를 宋美齡女史가 筆記하엿는데 그要旨를 左와 如히 發表하엿다

貴官等은 國家의 大局을 重히하야 余를 南京에 보낼 決心을하고 余에 對하야 何等의 協定 又는 特殊의 要求를 하지아니한 것은 中國으로 하야금 危殆를 轉換하야 安寧을 圖謀할것이니 또中國의 人格과 文化를 發揚하는것이다 中國은 由來로 知過而改를 美德으로 녀긴다 貴官等은 過去에 잇서서 反動派의 煽動을 밧고 余로서 不公平 又는 不誠實하다고 하야 余의 日記公私의 文書電報其他 各種文獻을 詳細히 檢閱하엿는데 其中一言一句로서 國家를爲함이 아니요 不誠意 偽瞞이잇서드냐 今次事變의 責任은 當然히 貴官等兩人이 負할것이다 但그原因을 論及하면 余自身도 亦是責任을 負하여야할것이며 余는 法規를 侵犯하야 政府를 憂慮시키고 人民을 不安에 陷入케하며 國家에 損失을 밧게 한것에 對하야 黨國及人民에 對하야 責을 負하지 아니치못할것이다 그러나 貴官等은 反動派의 宣傳에 依하야 余의 指令을 惡意로그릇알고 事變을 이르킨것은 明白하나 貴官等의 悔悟가 빨럿기때문에 事變의 擴大를 豫防할수잇는 事實에 對하야는 中央도 格別寬大한 處置를 取할것이오 余도 亦是 貴官等의 改心한 뜻을 中央에 充分히 要請할것이다

廣西派局面轉換
蔣介石氏生還으로

【廣東二十六日發同盟】西安事變을 契機로 廣西派는 對日宣戰을 抗日革命合戰線이라 高唱하고 白崇禧、李宗仁兩氏를 前敵正副總指揮로 屢屢히 軍의 移動을 行하고 抗日討賊軍을 北上시킬 手段을 整理하고잇든바 蔣介石氏生還의 報를 接하고 二十六日朝來桂林에 首腦部會議를 열고 局面轉換에 伴하는 新對策을 協議中인데 結局保境安民主義의 消極的態度에 還元할수밧게 업다고 推測되고 잇다

人事·集會

◀白南薰氏(晋州一新女高校長)昨日入京 中央호텔에

日曜氣配

◇期米 朝鮮米의 採算接近으로 漸次高價出現의 感이잇스나 東新高와함게 强硬人氣、新甫氣는 二三十錢以上으로 보인다
◇株式 綿絲相場의 反動安警戒에 年末關係도잇서서 利喰爭鬪로좋더 伸惱氣味가 보이나 春高豫想으로 氣配는强硬
大新 [illegible] 新東 [illegible] 鐘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八面鋒

◇西安事變에 對한 蔣介石氏의 述懷라고傳하는데依하면—
◇自己가 西安滯在中에는 上官으로 忠誠을盡하얏고 一次도 生命의危脅을 바든일이업다
◇張學良氏의 行動은 黨國에 背反이아니고 黨國을忠하는赤誠에서 나온것이오
◇이러케 今日事件解決에 關하야는 如何한名目으로 金錢의 授受는업다고。
◇가치엿다 살어나온것만하야도 水滸傳式。
◇그보다도 張學良氏가 蔣氏의뒤를따라 南京까지 온것이 더욱이 三國誌式。

今日本紙四面

科喉咽鼻耳
醫學博士 姜日永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二六六五番 入院室完備

合理的な耳と目によるギター練習法
コロムビア・ギターセット
¥30.00
無料添付 コロムビアレコード(ギター練習)二枚 最新ギター教則本一冊
京城本町 日本樂器會社
カタログ送呈

轉移擴張
科喉咽鼻耳眼 鄭起變
京城府安國町155·電光2521番
(별궁뒤동쪽) (別宮跡東側) 入院室完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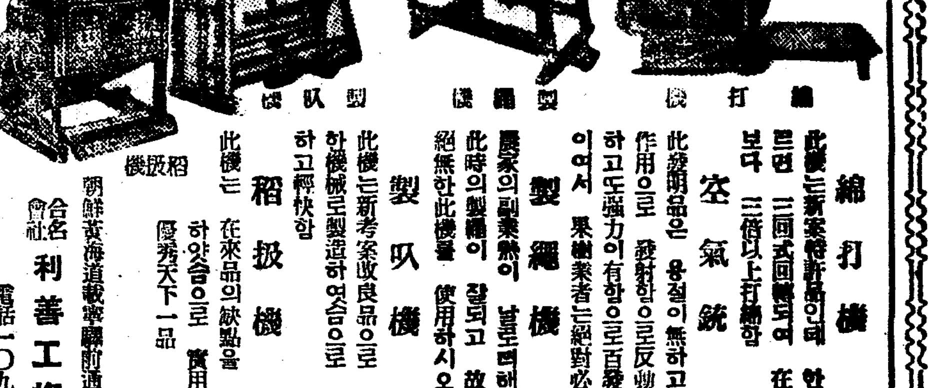
流行歌
시달니는가슴
못子의사랑
蔡奎燁吹込
콜럼비아레코-드

御贈答用 最適品
螺鈿漆器賣出
東館一階 朝鮮物產部
◇景品附 歲暮贈答用品大賣出 全店
◇新春用禮裝品·正月用品賣出
和信

모루히네 其他鹽類中毒에
福 모나ー루
一朝에治療를그릇처서—「모루히네慢性中毒」으로移行하야「모루히네」奪除困難에苦悶하시는분은곳福모나ー루療法에依하야確實하고完全히事業을하면서모루히네類를除去할수잇고速히舊健康體에回復함으로써安心하고應用하기를切望하는바입니다。
(文獻贈呈)
發賣元 順天堂醫化學研究所
販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田邊五兵衛商店
MONAL FUKU

時計材料附屬品眼鏡
(卸商)
一新舍
京城御成町一〇七 電本一八五

藥 卸問屋
營業案內
東洋藥業社
平壤府倉田里電車停留所前 電話二五二九

世界的發明空氣銃新案特許
米國專賣特許出願中

綿打機 此機는新案特許品인데 한번에 三回式回轉되여 在來式보다 三倍以上打綿함
空氣銃 此發明品은 용절이 無하고 空氣作用으로 發射함으로 反動이 無하고도 强力이 有함으로 百發百中이여서 果樹業者는 絶對必要함
製繩機 農家의 副業으로 날로 發展해가는 此時의 製繩이 잘되고 故障이 絶無한 此機를 使用하시오
製叺機 此機는 新考案改良品으로 精密하게 機械로 製造하엿음으로 堅固하고 輕快함
稻扱機 此機는 在來品의 缺點을 改良하야 實用的이 優秀天下一品
朝鮮黃海道載寧驛前通 合名會社 利善工場 電話一〇九番 振替京城一四七八六番

女子齒科醫專門學校
特典 學士號認許 無試驗開業 給費生制度
本校の特色 本邦最古の歷史、內容の充實、質實剛健の校風、學費の少額 女學校長推薦者優先入學
成績表審査無試驗入學、學費、寄宿舍等を詳述せる要覽進呈
東京市大森區大岡山 日本女子齒科醫專門學校

產科 婦人科 內科
院長 醫學博士 松本泰治
京城婦人病院

謹告

本社創立委員高世衡金晶奎兩氏는 創立用務를帶하고 西鮮各地를巡廻케되엿사오니 辱知僉位는만히賛同하여주시며 本社加盟店을希望하시는各位도隔意업시相議하여주옵소서

昭和十一年十二月二十日
京城府黃金町二ノ一九九
東邦物產株式會社
創立委員長 康益夏
電話②五一八七番

先般東洋百貨株式會社創立委員으로 被任된바 有하오나 其後事情에依하와辭任하엿사오니 知舊僉位는 照亮하시옵소서

十一年十二月二十四日
金晶奎

大京城한복판에서 自動車盜難事件
犯行後一時間만에 車體만 發見
犯人行方아직杳然

年末警戒를비웃는듯

경찰에서는 년말에 비상경계 진을펴고 흉악범죄를 방지하고 잇는 이때에 길거리에 잇는 자동차를 훔쳐 타고 도망해 버린 사건이 이 대경성 한복판에서 발생하야 미국의 범죄도시 「시카고」와 방불한바가 잇섯다 이십칠일 오전 두시오분쯤에 시내 고시정(古市町) 조일자동차부(朝日自動車部)운전수 김교인(金敎仁)(二七)군은 남대문통 일정목일번지 이십칠번지압 큰길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배가 고파서 그 근처 우동집에 드러가서 우동을 사서 먹고 약 삼십분동안 지난뒤에 길거리에 나가서보니 그의 자동차가 업서저버렷다 그래서 창황하야 곳 종로경찰서에 신고하엿스므로 그 경찰서에서는 즉시 시내 각경찰서에 통지하고 수사케하엿는데 동대문경찰서관내 암정(岩町) 주재소순사부장이 동일 오전세시사십분쯤에 그 관내 돈암리 그 자동차가 노혀 잇는것을 발견하야 찾게되엿다 한다 어떤사람의 소위인지 경찰서에서는 그 장본인을 찾는중이다

行商한利益金 百圓을寄附
釜山商校生美擧

【釜山】부산제이상업학교(釜山第二商業學校) 생도일동이 수일전부터 상업실습의 목적으로부내각가정을 도라다니면서 일용품의 행상을 하엿는데 그 리익금이 일백원에 달하엿스므로 도대표가 지난이십육일에 부산부청을 방문하고 그 리익금을 빈궁에 우는 아동들에게 분배하야 따뜻한 쌀밥한그릇식이나마 먹게하야 달라고 부탁하고 도라갓는데 일반부민들은 그들의 선행에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高陽元堂面道乃里에 覆面한食刀强盜
所得은업고毒說만남긴후逃走
西門署總動員猛襲中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도내리(高陽郡元堂面道乃里)의 동가 장영환(張英煥)(三二)의집에 나이십여세가량되여보이는 장한 한명이 복면을하고 칩입하야 장식도를 들고 「돈을내여라」 하고 위협하엿다 주인부자가 떨며 돈이 집에는 한푼도 업다고하자 「그러면 피해가 업스니 경찰에 신고하지말라 만일 신고하면후일 너의집을 전부 불살러버리겟다」 하고 종적을 감추고 말엇다 얼마시간후에 이보고를바든 서대문서에서는 사법주임이하형사대가 총출동하야 방금맹렬히 수사중이다

【중략】 철옹성가튼 시내의 년말경계에 비하야 경비의손이 희박한교외는 항상 념려되든바 이십칠일 서대문서관내에 또다시 강도미수사건이 발생하엿다 이날오전 한시삼십분쯤에 동서관할 통곡(陜谷)주재소관내 고양군원당면

"작란? 惡意?"
곳처져서고맙습니다"

金運轉手談 조일자동차부 운전수 김교인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길야정(吉野町)사는 손님한분을 길에서 맛나서 그분을 태워가지고 가다가 시장하기때문에 그분을 따라 우동집에 드러가서 우동을 사먹고 나와보니 즉 자동차가 간곳이 업습니다 돈암정파출소에서 발견하야 통지하여주기에 비로소 안심하게되엿는데 누구가 작난으로 한짓인지 어떤목적으로 한짓인지는 짐작할수업습니다

貧民에게施米

【釜山】 부산경찰서에서는 각방면에서 부내빈민에게 분배하야 달라는 동정금이 팔백사십구원이십전이 모하엿스므로 지난이 한명이 ...

橫暴한電車乘務員
姙娠婦의左足을切斷

경전(京電)승무원의횡포가 드듸어 임신칠개월이나되는 잉부의다리를 끈케하엿다 이십륙일 오후일곱시십오분쯤 부내죽첨정(竹添町)이정목 마포선(麻浦線)정류소에서 변평옥(邊平玉)이가 운전하야 마포로떠나랴든전차운전대에 한발을올려노앗든 부내 계동정(桂洞町)일백사십번지리귀순(李貴順)(二四)녀사가 전긔운전수가운전을개시하고 문을닷는통에 차아래로떠러저서 왼편발목이 끈허지고말엇다 피해자는곳적십자(赤十字)병원에입원식히고 응급수당을가하야 생명에는별고업스나 그는임신 칠개월이나되여 뒤가념려된다한다 그리고이광경을목도한사람들은 운전수의비행을매도하고잇다

咸南山間地帶는 醫療惠澤과無緣!
診療못밧고死亡者六·八%

【咸興】 의료긔관이 부족하다는 비명은 전조선을 통하야 매일가티 듯고잇는 소리어니와 최근집계된 함남도의생과의 통계를보면 더욱히 그빈약함에한심치안흘수업다
즉 작년중 함남도내에서 사망한사람은 일본내지인 칠백팔십륙명 조선이삼만이천구백삼명합계삼만삼천륙백구십륙명으로서그중 의사(醫師)의 진료를바든사람이 일본내지인은 칠백사십이명으로 총사망자수의 구할이나되며 조선인은 사천삼백이십칠명밧게는 되못된다
그리고의생(醫生)의진료를바든사람이 이만륙천사백 오십삼명이나되며 의생의사등의 의료긔관의진료라고는 전혀밧지 못하고비참스럽게죽어간사람이일본내지인 삼십구명 조선인은 이천이백삼십오명의 다수에 달한다 이것을 총사망수에비하면 실로륙퍼ー센트팔이라는 참상이며더욱이 심산지대에는 거이의생의 진료도 밧지못하고 죽어가는형편이라고한다

各地에强盜出沒
沙里院엔短刀强盜

【沙里院】 지난이십오일새벽 한시경에 봉산군만천면유정리(鳳山郡萬泉面柳井里)사는 연조소매인 김종해(金宗海)의집에 어떤괴한이 나타나서 길이구촌이나되는 단도를휘둘으며 돈을내노라고위협하야 현금십오원을 강탈하야가지고 다라나바렷는데이급보를바든 사리원경찰서(沙里院警察署)에서는 즉시비상수사망을느리고 엄탐중이라는바 마침 범인을탐하야 강도사건이 빈발하야 경찰당국에서는 눈코뜰새업시 계속활동중이라 한다

義城强盜는逮捕

【安東】 본적을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多仁面陶岩里)에두고 이래 수년간 남조선각지에 서 절도범행을 감행하여 오든 김을규(金乙奎)(三三)는 또다시지난 십팔일 오전두시경에 동군안평면 태조바우재(太鳥岩嶺)에서 작반하여오든 군위군 부계면 가호동(軍威郡缶溪面佳湖洞)에 거주하는 신태석(申泰石)의소지금 십이원여를 강탈하여유 ... 이로 범인의유류품가튼것이 아무것도업서서 수사는 상당히곤난할것갓다고한다

關東地方에强震
震源地가海底임이多幸

【東京電話同盟】 이십칠일 오전 아홉시삼오분쯤하야 관동(關東)지방으로부터 중부(中部)지방에 걸처서 완만한 지진이잇섯는데 첩강현(靜岡縣)신내천현(神奈川縣) 천엽현(千葉縣)지방등이 감도(感度)가 가장심하야 장소에따라서는 시계가 정지될정도이엿다 진원지는 전엽현야도긔(野島崎) 남편해안즉대도(大島)부근이여서 지진의 규모로보아서는 상당히 큰것이나 다행히 진원지가해저인관계상 그다지 피해는만치안헛다 한다

新島는全滅說

【東京電話同盟】 이십칠일오전열시반 신도(新島)원촌역장(元村役場)으로부터 동경부청에들어온보고를 보면 이번지진으로 인가가 전멸되고 지금도 강진이계속하야 조사할수업다고하며 이십칠일오후열시이십분 대도(大島)지청에서 동경부청에 드러온 전보를보면 오전아홉시 오분 신도에진재가 이러나서인가가 전멸되엿는데 아즉도 강진이 계속하야 방금조사중이라고하엿다

"벙어리"체寄附
歲末同情金으로

시경에 불우한 어린이를 위해 ... 무난히 ... 진행중 ... 리라고한다
가륵한 어린이가 잇다 부내인사정(仁寺町)이백오십이번지 경성사범 부속 보통학교 일년생 리상호(李相鎬)(七)군은 변말연시에 추위와 주림과 싸우는 어려운사람들에게 떡국한그릇이라도 먹게하고 옷한가지라도 입게하는데 보태여 달라고 이십칠일오전 한푼두푼식 벙어리에 모아두엇든 돈삼원오십전을 가지고 본사에 차저와서긔탁하엿다

一等飛行士 朴奉祉氏
愼航空事業社에入社

신항공사업사(愼航空事業社)에서는 올해 일월부터 경성리(京城里)사이 항공로를 일주일에 두차례식 비행하기로되엿는데 이번에 일등비행사 이등항공사박봉지(朴奉祉)(三七)씨가 입사하여 조선항공계에 활약할터로 이십칠일입사인사차로 신용욱(愼鏞頊)씨와함께 본사를내방하엿다 (사진우편은 신용욱씨좌편은 박봉지씨)

黃金町에出火
二戶를全半燒

이십칠일오전두시오분 부내황금정(黃金町)이정목 팔십구번지제과상신국현(申國鉉)의 집에서불이나서 그집한채와 그이웃집반채를태우고 소방서원과 및소관 본정서원의 노력으로 동두시삼십분에 진화하엿는데 손해는약팔백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방금조사중인데 실화인듯하다고한다

거리의殊常漢!
勞働服우에紳士外套
잡고보니典當잡히러오든길

이십륙일 오후여덟시십분쯤에 종로경찰서원이 시내서린정(瑞麟町)복전(福田)전당포아플 순찰하든중 로동복우에 신사외투를입은 수상한청년한명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데려다가 조사해본결과 그는 절도범인인것이 판명되엿다
그는시내서린정 일백오번지양화직공 장룡준(張龍俊)(二二)으로 그외투안에는 한양히(韓洋熙)라는일홈이 색여잇섯는데 시내황금정 사정목이번지 고룡상금광당(金光堂)시점에 진렬해둔것을 훔쳐서 전당포에 잡히려갓든길이엿다고 자백하엿다한다

설매타든學童 薄氷깨저慘死

【義州】 지난 이십사일 오후한시삼십분경 황해도 옹진군 서면 읍저리(西面邑底里)사백십팔번지에 사는 박형신(朴亨信)씨의 넷재아들 의수(義洙)(一三)는 소강(蘇江)시외에잇는 적벽강(赤碧江)에 나가서 혼자 설매(橇)를 타다가 박빙(薄氷)이꺼지며 순간에 강물속으로 드러갓다는데 이 급보를 접한 소강경찰관주재소에서는 「와이렌」을 울리며 소방조원들을 비상소집하

여러분에게 作年忘年會는
三百名大宴會場에서
風味佳肴의新鮮料理로
美華麗한座席
太西館本館 電話光 二一四三
太西館別莊 電話光 二〇五六 龍山 一三一四
오날의 名妓 張蓮蘭 羅鳳仙 金仙玉 (本館許可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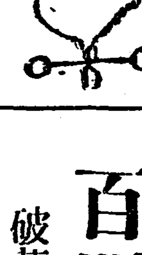
寬甸縣白菜地附近에 腸窒扶斯病猖獗
朝鮮側에傳染을憂慮

평북창성경찰서(昌城警)대길 주재소(大吉駐在所)대안 만주국관전현백채지(寬甸縣白菜地)지가와 그부근일대에서는 요지음에 장질부사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야 벌서 그수효가 백여명에 달하엿다 한다 그곳은 바로 압록강(鴨綠江)가로부터 약이십리상거밧게 안되는 가차운곳이고강우로 서로래왕가 잣슨하야 교통이자진곳이므로 창성경찰서에서는 조선측으로로 전파되여올가 념려하야 총독부경무국의「왁그틴」조사약전오백인분을 급히 청구하여다 일간에일제히 그곳주민들에게 주사를실시하기로되엿다한다

咸興의新炭暴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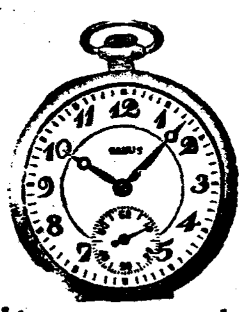
함흥시장에서 매매되는 장작(新木)은 지난십월초순이래 점점폭등하기시작하더니 최근에이르러서는 한대(臺)에 적어서오원·심지어는 십이삼원의 고가를보이고잇는데 이와가티 대폭등한것은 일즉 그례를보지못하엿다고한다
더욱이 목탄(木炭)은 검사제실시이래 비행기를 탄듯이 고등하야 한섬에 일원삼십전 내지 이원으로 작년의 약배나 올랏다고한다 이러와가티 고등하야 그러치안허도 겨울의 필수품이이 물을 못때이고 떨고잇는 세궁민들은 거이 나무를 때일수업는 형편으로그들의 곤궁이 매우 우려라고한다

天氣予報



概況 高氣壓은 中國內陸地方과 國境中部에잇서 七六八미리를 보히고 그곳으로부터 日本內地方面에 漸次낫게빗겨잇다 南朝鮮은 개이고 湖南地方은 흐리며 日本內地도호리여 곳곳에 비가오다
豫報 京城地方오는밤과 明日은 개인다 京畿全道도갓다
昨日最高 四度七
同 最低 零下二度一
今朝最低 零下三度七
今日正午

百聞이不如一見!!
歲暮大賣出을爲하야 兼實物宣傳



破荒的價格으로 논아드림니다 大量生産과 實價提供은 本社가아니면 絶對로볼수업나이다 但都賣에限하며 一口注文은 五個以上으로함 個人注文은 左定價에三割을加算함

十八金代用懷中時計 「十六型」 實石入アンクル 一個 三圓五十錢
十八金代用腕卷 「十 型」 實石入アンクル 一個 三圓七十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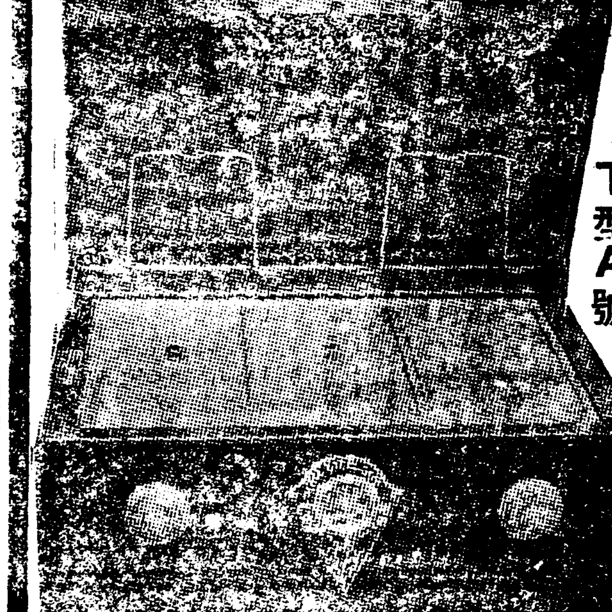
注文方法
特別奉仕이오니 前金注文以外는 謝絶함 同業者又는 團體注文에限하야 右金額으로 頒布함 送金은小爲替又는 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으로 拂込注文하시고 時計個數는 各五百個이오니 賣切되면謝絶함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丁目
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 クラウン工業所

手提金庫界の大革命到來!
永年研究に依り理想的發明完成
見よ!!! 手提金庫の覇王!!最高級鋼鐵製の最新形當店專賣品!!
歲暮奉仕先着順小賣值四分ノ一五百個限投賣賣切次第〆切!!

歲暮奉仕中實物宣傳하기爲하야但一人當金庫一個限으로하고以上注文은謝絶함註文金額에一圓을加算하면實物에依하야金庫에다店名을색여드립니다그리고歲暮奉仕中註文은前金又는注文高에三割以上을送金하시고內金이업는注文은絶對로謝絶함送金은爲替又는東京振替三三五〇三番으로拂込하시요 送料는郵便小包에는一圓二十五錢鐵道便이면運賃을要합賣切되기前에速히注文하시는것이有利 クラウン工業所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丁目 振替東京三三五〇三

御送金及注文方法!



T型A號
自動開蓋付警報器裝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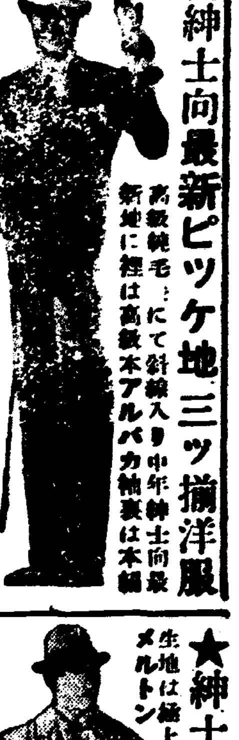
種類及寸法	縱幅	橫幅	高サ	重量	定價	特價
五〇〇番A號	一·二尺	八·二尺	五·二尺	一·貫	三〇圓	一〇·〇〇
B號	同	同	同	同	二八圓	八·五〇

(1) 材料は總て精選せる特種鋼鐵板を用ひてあります
(2) 塗裝A號はオリーブ色結晶塗B號は黑塗優美で有升
(3) 前部の暗號文字符號は精巧で絶對故障を生じません
(4) 前部のハンドルを右に廻せば蓋は自動的實に氣持良く輕快に全部上迄開く裝置になつて居升從つて在來の手提金庫の樣に蓋で手をいためる樣な事は絶對に無く片手で自由に開閉出來る爲事務(及使用)の能率ないやが上にもあげます此点弊店の最も苦心の新發明にて而して微妙精巧なる盜難防裝置を兼備し貨財の保管を絶對完全に致し升 御說明よりは現品が物を云ひ升全く從來の型を破りました此手提金庫を一度御覽願へば總て御合點の事と存じます正に手提金庫の寵兒として各方面で異常な好評を受けて居り升

使用法!
(1) 前部のハンドルを右へ廻すと開蓋す
(2) 暗號文字合せ各々指定文字に合す
(3) 鍵穴左へ廻すと鍵がかゝり右へ廻すと外る
(4) 警鈴韓向鈕裝置STOPは開くときのみ鳴りRINGは開く時及び移動の場合は連續に鳴響す
(5) ネジ卷器
(6) 金、貨投入口

顧客本位の絶對責任附 高級洋服原價投賣

★紳士向最新ピツケ地三ツ揃洋服



高級純毛にて斜線入り中年紳士向最新地に裡は高級本アルバカ袖裏は本絹
永久無比 特製高級品 三ツ揃一着 十七圓五十錢

朝鮮服用オーバ特製品
漢服주이우에덧입을수잇게獨特한裁斷法으로製作한オーバ이며名古屋、大阪等地의物品에比하여品質이優秀하고絶對經濟的임은勿論防寒에는덧칠수업는備品입니다
長サ二尺八寸ヨリ三尺四寸マデ 色ハ茶、黑、회색等
A·十八圓五十錢
B·十五圓三十錢
C·十圓五十錢
D·七圓八十錢
E·六圓三十錢

★縞スコッチ三ツ揃

冬節用の 青年中年向紳士向としてアルバカ綿裏付
耐久無類の高級背廣品
高級品……特價……金十三圓也
極上品……特價……金十四圓也

★寒帶地方絶好のサージ洋服

生地は極上サージ アルバカ綿裏付
背廣三ツ揃 金十六圓也 詰エリ一揃七圓也
背廣三ツ揃 金十七圓也 詰エリ一揃八圓五十錢
丈夫一点張りの高級仕立

註文方法 葉書로申込하면迅速代金引換으로送品함商品不合意한때는交換又는返金함 (...)
東京市向島區東三丁目 振替東京三三五三番 クラウン工業所

★紳士向羅紗メルトンオーバ

生地は極上メルトン 裏は絹朱子 袖裏は絹朱子
色は紺黑茶 仕立並に附屬品は特に念入の紳士向として最適品
二尺八寸 片前金七圓六十錢
三尺 三尺八寸 兩前金八圓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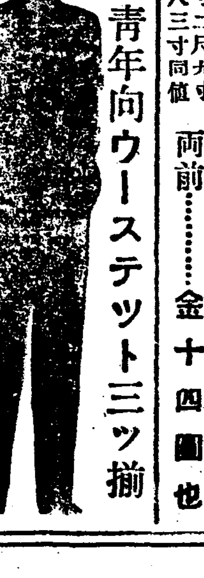
★最高級本ラクダオーバ

上等純ラ 生地クダ
裏は本絹朱子 袖裏は本絹縞朱子 高等說向の仕立 色は紺黑
二尺八寸ヨリ 三尺マデ同値 片前……金十七圓也
二尺九寸ヨリ 三尺三寸迄同値 兩前……金十八圓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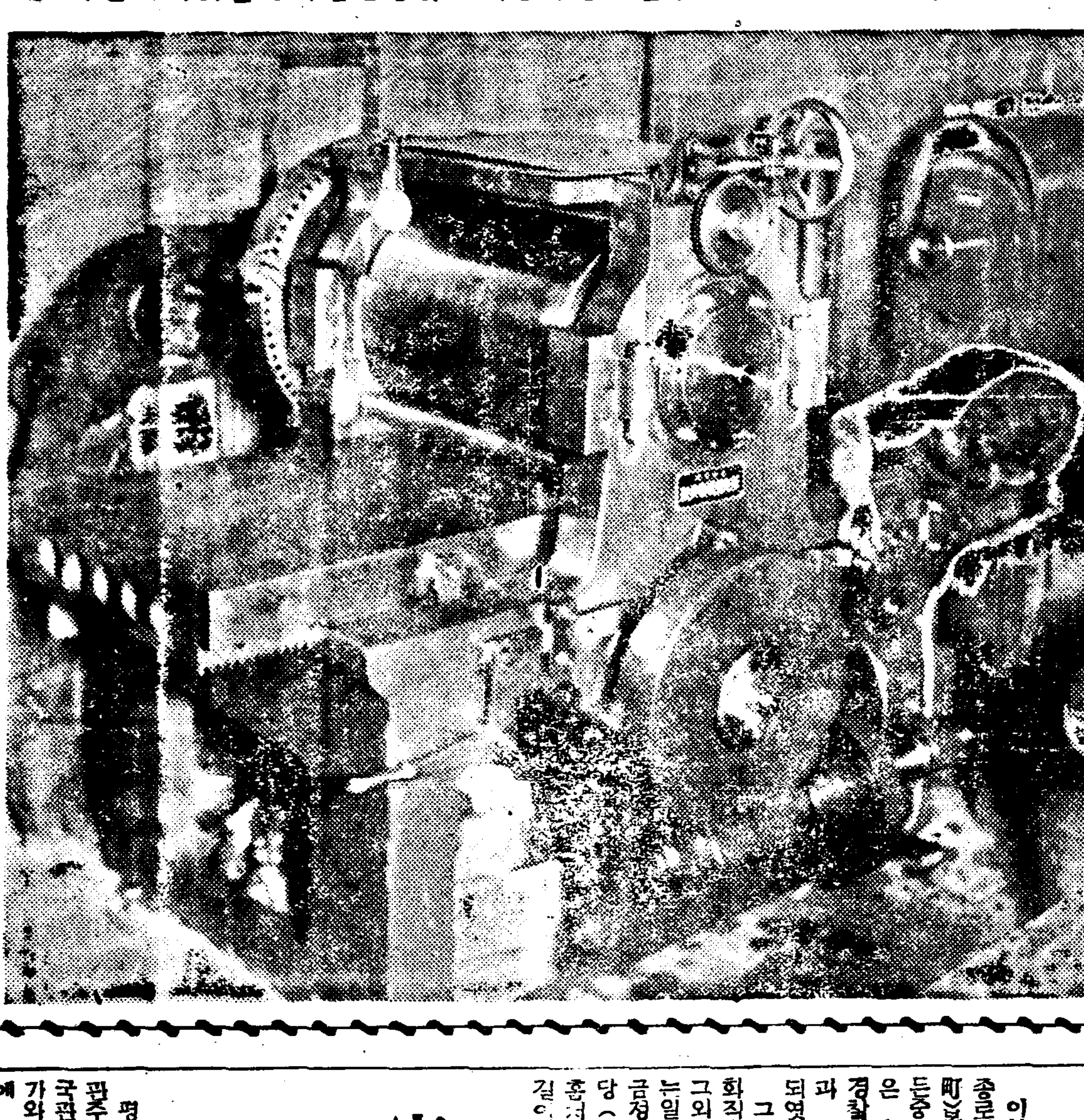
★高級霜降新型オーバ

高級毛純 杉綾新柄 色は鼠、薄茶
生地は上等 ベロア霜降
裏は絹朱子 高級仕立袖裏は縞朱子
二尺七寸 二尺八寸 三尺同値 片前……金十三圓也
二尺九寸 三尺三寸同値 兩前……金十四圓也

★紳士青年向ウーステット三ツ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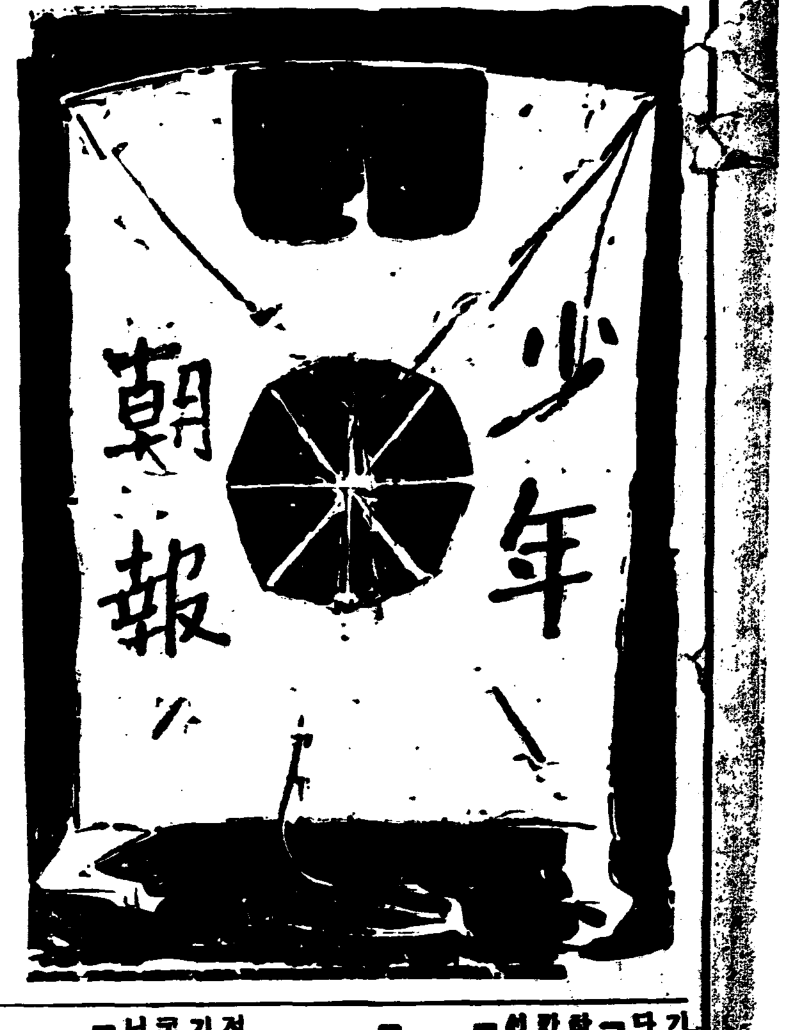


本年大流行の紳士用ウーステツト地
最新柄純毛製 色は茶、濃茶、紺 小柄、中柄、大柄等あり。年齡色合御指定あれば見計ひ御送附致ます
高級品 三ツ揃一着……十五圓五十錢
特製品 三ツ揃一着……十八圓三十錢



號外는卅分間以內
本社工場新偉力
最新式 紙型壓搾機設備

약진도약진! 비약적 발전을 계속하고잇는 본사에서는 참신과 완비를 항상자궁하여오든 종래의설비로도 도저히 나날이 몰밀드시 모혀드는 만천하독자여러분의 지지와 기대를 충분히 보답할수업슴을늣기고 금번이때로 떠한층 공장의설비확장을 꾀하야 고속도륜전긔(高速度輪轉機)와 최신식압착긔(紙型壓搾機)를 동경긔계제작소(東京機械製作所)에 주문하야 신년호(新年號)인쇄에 맛도록 주야겸행제작에 힘써 왓스나 긔계회사의 분망으로 말미암아 륜전긔는 아직 완성되지못하고 지형압착긔만이 완성 래착하야 이십일전부터 그위력을 발휘하게되엿는데 이지형압착긔는 일본전국에서도 두어개박게업는 최신우수긔로 약삼분간에 지형이떠저서 종래의 긔계보다 보통때에십분이나 호외(號外)때에는 삼십분이나 빠를뿐만아니라 지형이 선명함에따라 인쇄가 일층 선명하게될것으로 신년벽두에 완공래착키로된최고속도륜전긔장치와 아울러 본사가 새해에독자여러분에게 이바지하는 봉사의 한실마리가될것을 밋는바이다
(사진은 최신식지형압착긔)



‖童話‖

정직한나무군

金相德

귀동이는 날마다 날마다 깁흔산속 연못가에서 나무를하엿습니다.

오늘도 장에가서 나무를팔고 도산으로 나무를하러갓습니다 얼마동안이나 나무를베히다가 고만잘못해서 제일소중하게 역이든 독기를 풍덩 물에 떠러트렷습니다.

깁흔 연못속에 떠러진 독기를 차즈려고하면 손종이나잇겟습니까?

귀동이는 이독기가 업서서는 살어갈수가업서 근심을하엿습니다 그래 독기를 잃어버리고는 물을 뚝뚝흘리면서 연못속을 드려다보고 울엇습니다 울고잇는데 누가

「여보 왜 울어요? 무엇때문에 그러케 울어요」

하는 소리에 놀래서 고개를 들고 보니깐 어데서 왓는지 선녀가 서잇섯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어데서 오섯는지요」

선녀는 나무군을 보고 방긋웃으면서

「나는 이연못 물미테 사는 룡궁에서 왓서요 머? 놀래지는 마시고 말슴을 해요 왜 울으세요?」

「저는 독기를 이 물속에 떨어트렷습니다 그것하나라거던 는데……인제는 밥버리도 못하겟스며 식구들이 모다 굶겟스니 이일을 어쩌면 조켓습니까?」

「네 그렷습니까 그러타면 울지마서요 아모리 물이깁퍼도 내가들어가서 차저보지요」

하드니 선녀는 물속으로들어가 고말엇습니다 얼마후에 선녀는 그손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금독기를가지고 나왓습니다

「여보서요 이것이죠? 당신독기는」

나무군은 금독기를보고 머리를 흔들며

「아님니다 그것제것이 아님니다 그것보다 퍽 드러운것입니다」

하고 정당하게 대답한즉 선녀는 고개를끄덕끄덕하고 물속에들어가서 조곰잇다가 두번째에는 은독기를가지고왓습니다

「그러면 이은독기입니까?」

나무군은 또고개를 흔들며

「아니요 그것도아님니다 제독기는 그런것이아니고 쇠독기입니다」하고 대답한즉 선녀는 방긋우스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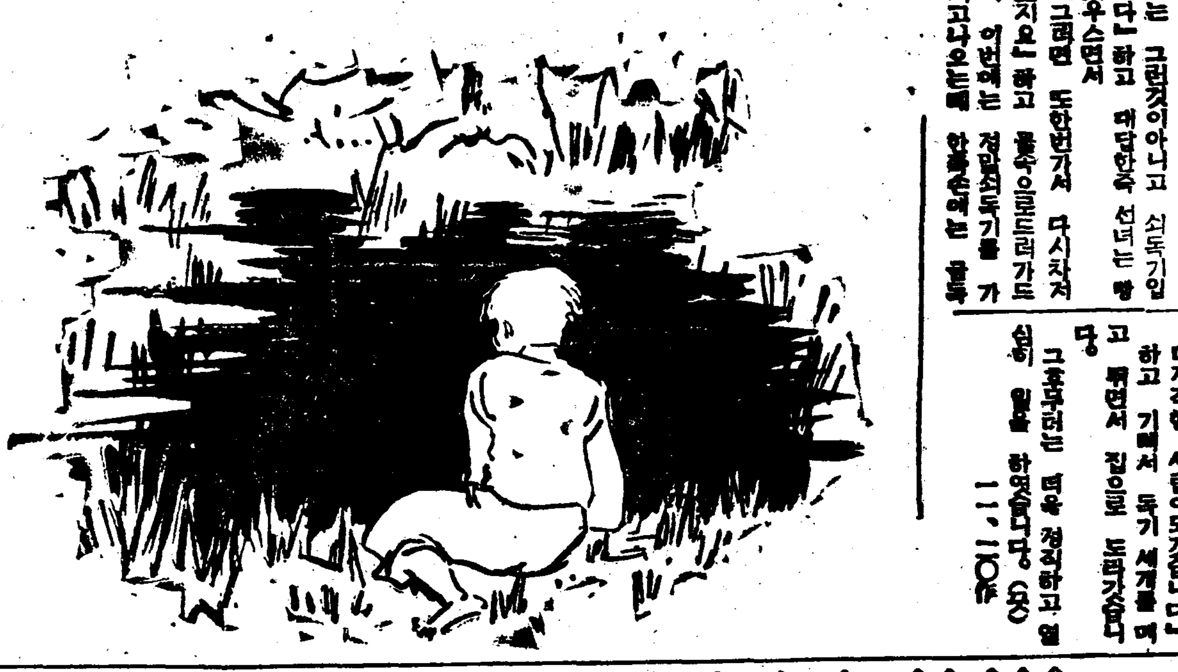
「그러면 도한번가서 다시차저보지요」하고 물속으로드러가드니 이번에는 정말쇠독기를 가지고나오는데 한쪽손에는 금독기와 은독기까지들고 나왓습니다.

「자아 어서독기를 바드서요」 하며 얼어버린 쇠독기를 주니 나무군은 반갑고 고마워서 선녀에게 절을하며 「참 고맙습니다 뭐라고 감사를 엿주면조흘지 모르겟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정직한사람입니다 자아 이쇠독기와 은독기도 바더주서요 당신이 정직해서 상으로 드리는것입니다」 어서바드서요」 하고잇는데 선녀는 금독기와 은독기를 나무군압헤다놋코 물속으로드러가 버리고말엇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쇠독기를 차저주시고 금독기 은독기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부터는 더정직한 사람이되겟습니다」 하고 기뻐서 독기 세개를 메고 뛰면서 집으로 도라갓습니다 그후부터는 더욱 정직하고 열심히 일을 하엿습니다. (끝)

一二、二〇作



수철아 날마다 가치 놀다가 방학하고난뒤에는 너하고 놀지못하니 보고십다 너는 내가 보고 십지안흐냐? 그저께 크리쓰마스날밤에는 정말 산타크로ー스할아버지가 과자를 갓다주고가더랑。 너도 바덧니? 인제는 설도 멧칠남지안헛당。 너는 설빔을 뭣햇니? 나는 아버지가 외투를하나 사다주섯고 어머니가 치마 저고리를 해수신대여。 초하로ㅅ날은 누가 먼저 세배를갈가? 그러지말고 네가 우리집에 놀러오느라。 강정하고 화채나먹고 놀장。 꼭놀러오너라。 인숙이。

新刊紹介

▲朝鮮文學 新年號(內容) 作壇批評壇의回顧와 그의展望、創作―追悼會、거울속에서 까리는자나이、少年과妓生外六篇、文藝評壇의回顧와展望、詩―비나리는저녁、旅愁、눈나리는漢城의밤 外事의思想外六篇、劇作活動의新展望、設問―昭和十一年度朝鮮文學의動向―鄭芝溶外諸氏、 其他 發行所 京城府寬勳町 四五八 朝鮮文學社 振替京城 二四六八八番 定價五十錢

▲錄音月報 十二月號(內容)都市計劃に關する若干の考察 所得稅制 第二回國勢調査 朝鮮における保險統計 土木事業災害 其他 發行所 朝鮮總督府 定價三十錢 送料二錢發行所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一二〇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四〇番

▲野談 新年號(內容) 柴鹿洞仙春塘臺、丁丑年의吉凶、過客의線、호르는王寵、最近五十年秘錄、全羅三國遺事、天子劍、孫兒의再生、梅檀의엽、戒僧、紺宰와侍女、碧蠶一夢、노래夫婦有別等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四五 野談社 振替京城 一一八三八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朝鮮農會報 第七十六號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朝鮮農會事務部 振替京城三〇三三番 定價一部六年

▲聖火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武橋町二一一의七 聖火社 振替京城三二三七番 定價十錢

▲朝鮮消防協會報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古市町四ノ一三 朝鮮消防協會 振替京城一一〇三八番 定價五十錢(附錄)朝鮮官公署職員錄

▲東亞民論十二月號 發行所 東京市赤坂區青山南山町二ノ六五 東亞新光會 振替東京一二〇四八四番 定價二十錢

▲時中 第十四號 發行所 京城府三淸町山二ノ五 時中會 振替京城二四五〇一番 定價一部五錢

▲한글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花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定價七錢

▲ホームライン新年號 發行所東京市日本橋區町一町目 ホームライン社 振替東京(二二)一一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月刊ロシヤ 新年號(內容) 役選事變と蒙古民族、日獨協定と日蘇經濟への影響、座談會―日獨協定と世界の新局面、第八回ソヴエート大會におけるスターリン報告演說、附錄―蘇聯邦十九年史圖、等 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の內二丁目二 日蘇通信社 振替東京六一五〇八番 定價四十錢送料本社負擔

▲基督敎報 第八十七號 (週刊)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二五九〇番 定價一部 五錢

▲朝光 新年號(內容) 靑年特輯號 五百年間丁丑史 新年부터 硏究할主題 大軍備와世界經濟의前途 日獨防共協定의意義 列强의對中國策 思想保護觀察令 新年의主人公 소ㅡ소의行狀記 어린時節의나와소―金煥泰 殉死하는소의精神 英皇帝에드와드八世陛下의 御戀愛 靑年論 의 性格과課題 작베ㅣ르文化論 文壇投書論 新年文壇展望 演劇과文學 東京遊記―李光洙 新綠俠客金剛 新春創作欄―長篇戰川邊風景外中篇 短篇 探偵小說等 其他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二丁目九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四十錢送料本社負擔

라디오

二十七日(日曜)

◇午後六時(城)이야기「겨울방학에어떠케놀을가」尹翌相

◇同六時二五分(城)心田開發講演 安寅植

◇同七時三〇分(城)歌謠 一、騎士歌 二、春眠曲 金眞紅 韓英順

◇同八時(城) 라디오・드라마 怨情 全一景 ―金松作―【配役】李明洙…(新聞記者)…李流 洪求…(放浪者)…李石元

二十八日(月曜)

第一放送

◇午後六時〇分(東)なさて座談會

◇同六時二五分 產業ニユース

◇同七時三〇分(大)ニユース

◇同八時〇分(東)浪花節

◇同八時五五分(東)舞踊劇

第二放送

◇午後〇時五分 小說朗讀(放送) 中一節―李泰永作― 李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同六時(子) 兒童劇 李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皐蘭明少年會

◇同六時三〇分 運動講座(一)

◇同七時三〇分 講演「一年의回顧」 원리・스포ーㅊ 鄭保羅

◇同八時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달거리 三、굿거리 四、 洪蘭坡

◇同八時三〇分 古典 李琳 崔貞植

◇同八時五〇分(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 講談

◇同二時(城) 服飾座談會

◇同五時(城) 童謠

▲同六時二五分(城) 講話

◇同七時三〇分(大) 講談

◇同八時(大) 浪花節

◇同八時五〇分(東) 管絃樂

二十九日(火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併唱 一、短歌大丈夫 二、唱劇調赤壁歌 鼓手 丁元受

◇同一時一五分 洋樂 (레코ー드演奏)

◇六時 童話朗讀 金順姬

◇同六時二五 運動講座(二) 鄭保羅

◇同七時三〇分 名作流行歌 第一夜 一、바다의캬레반(尹) 二、바다의젊은이(尹) 三、눈물의追憶(全) 四、靑鳥야왜우느냐(全) 五、금노다지(金) 六、안개낀섬(金) 七、윤클렐레·베이비(金) 尹鍵榮 全玉 金煥 伴奏 DK管絃樂團

◇同八時 野談 錦衣還鄕 申鼎言

◇同八時三〇分 山念佛 一、山念佛 二、寧邊歌 三、孔明歌 四、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변조난봉가 白牡丹 鄭綿紅

◇同九時 音律 靈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員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城)家庭講座

◇午後〇時〇五分 (東)講談

◇同六時 (東)라디오・스케취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東)餘技의밤

★曆★

十二月廿八日(月)

陰丙子十一月大(十五日)

甲申 水 畢 成

祭祀移徙裁衣上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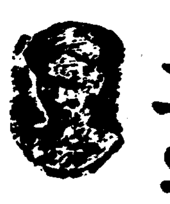
安葬에에宜함

▲冬至二十二日(陰初九日)

長篇小說

그의自敍傳【7】

長白山人 作 熊超 畫



어린적 (七)

우리는 살사변갑이 살던 말 이웃의 고소해하는 조롱속에 쫓아가듯이라는 동네로 이사를갓다。 그래도 큰 살림하던 끝이라 이삿짐이 많아서 드는 한 점은 사람들이 많을 흘리면서 하로종일저날른던것을 나는 기억하고 또 가마에다가 섞어 와 흥때며 코지롱행이를 모시고 흥이 죽은 아버지가 그뒤를 따라오던것도 기억한다。 산주는곳간이라는 우중충한방에모시기로 하엿으나 정문은 세울때가 없어서 돗자리에 싸서 헛간에 메다는것이 내가 보기에도 슬펏다。 새로 떠나오집은 방이 셋밧에 없고 대문ㅅ간도 없는 초가집이엇다。 뒤란도 없이 명끝 동넷 사람들이 덩기는길이엇다。

아버지는 매 밤이 못을 전모양이엇다。 세밀이되면 남바위를쓰고 수건 동여매고 두툼한 허리를 새끼매기로 질끈 동이고 빗밧이들이 많이 찾아왓다。 남들은 해을 해내 부칠 계집을 하네하고 분주한 그믐날 어머니는 불도잘째지못한 방에서 우리오누의 설빔을 꾸미면

「초시님 게시우?」

하고 밧에서 밤에 물흔 눈을 독독하면서 부르는 소리는 모두 빗밧이의 소리엿다。

「안 게서요」

하는 어머니 대답을 듯고도 그들은 냉큼 가지아니하고

「서달 그믐날도 안주시면 언제 주신단 말요? 좀 힘드럽는날의것을 머기는 웨던어」

하고 볼부은 소리를 하다가 어쩔수업시 가버리고 말앗다。

「초시님 게시우?」

하는 소리는 밤이깊도록 들렷다。 어머니는 수없이、

「안게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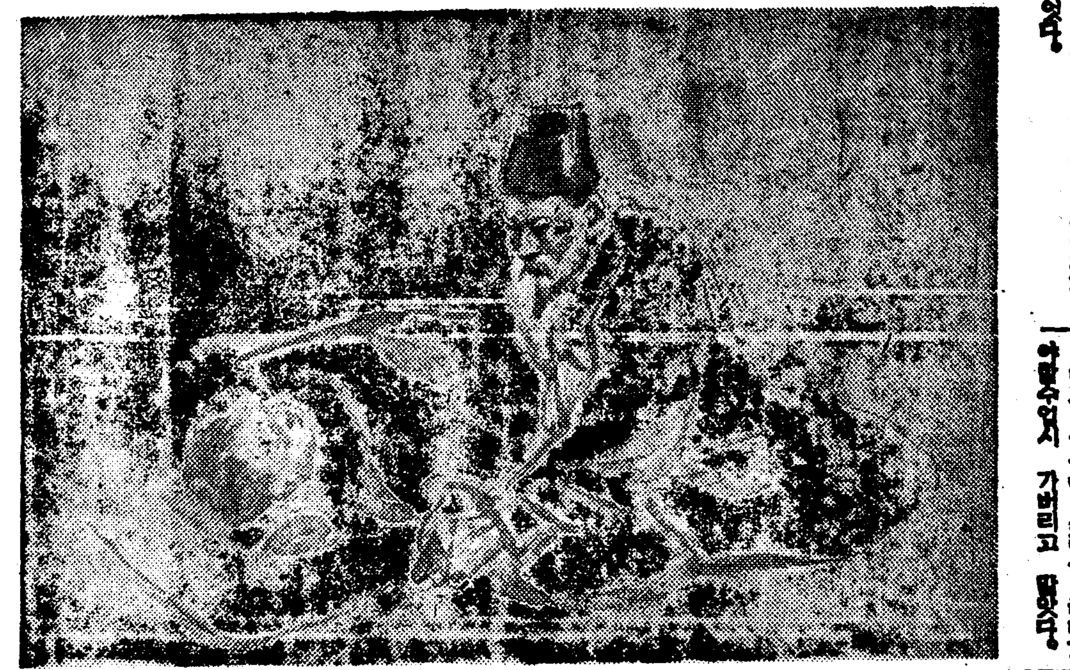
를 반복하엿다。 나와 내어린 누이동생은 제 옷이 다 되는것도 보지못하고 이불ㅅ속으로기어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리고만다。 아침에 깨어보면 아버지는 언제 돌아와잇는지 결에 잇엇고、 그래도 차례라고 지낸법하야 아버지는 망건을 쓰고 행전을치고 잇엇다。

가난 고생이 심할수록 아버지들은 더욱 말이아니엇다。 볼은터옷을어가고 눈까지도 웅죽들어갓다。 나는 아버지가 저러다가 죽지아니하는가、 하고 근심하던것을 기억한다。

나도 새옷을 입고 행전을 치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 동네에서 얼마 멀지아니한 조부집으로 세배를 갓다。 조부집에 들어가는 동구에는 버드나무가 열아문 그루 잇엇던것을 지난 여름에 그 임자가 찍어버렷다고 해서 아버지가、

「어 고이한놈들갓으니」

하고 어른 다니는 길에 나무를 찍은것을 호령호령해서 마침내 잘못햇다고 주인에게 사죄를 받고야 만것이다。 나는 아버지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것을 기억한다。



「원 협착해서。 내년에는 새로 집을지어야」

하고 아버지는 혼자서도 중얼거리고 인사오는 동넷 사람들더러도 변명삼아 말햇다。 그러나 아버지는 일생에 다시 사랑ㅅ간과 정문잇는 집에 살아보지 못하고말앗다。

얼마ㅅ동안은 예전ㅅ집을 팔아서 지금ㅅ집을 사고남은 돈으로 (아마) 걱정없이 살아간 모양이나 차차 어려워지는 모양이어서 평풍이며 책이며 문갑이며 이런것을 팔아먹기시작하엿다。

「집도 좁은데 이것들은 다두어서 무엇해ー다 낡아빠진것을」

이렇게 아버지는 중얼거리면서 하나씩하나씩 내 팔앗다。 내 초롱과 검놀 팔지아니하는 동안 나는 그렇게 크게 관심도 아니하엿으나 그러한 흥청이 잇은뒤에는 어머니는 울면서 아버지현테 대들엇다。 언제부터 아버지、어머니의 내외 싸움이 시작되엇는지 기억이 없거니와 필시전해오는 세간을 파든데서인가 생각된다。

「술을 잡숫지말구려」

하고 어머니가 울면서 말하는것을 여러번 들은것을 보아도 그싸움의 대부분이 잇엄 세간을 모조리 내어팔아먹지아니하면 아니될 생겨곤난에서 온것임을 알수잇다。

主婦之友 新年號大附錄 花嫁さん全集を全國の家庭へ推奨!!

〔꼭保存해두고싶은全集〕

菊池寛

「花嫁さん全集」은우리家庭에서는、누구나好評이여서안해도이冊만은꼭保存해두겟다고한다。그것은밧듯이도女息이出家前年齡이되여그럼이아니라、안해도읽고서、이것은絶對必要하다고하며、나도한번보앗드니 그건말할수업시滋味가잇서、꿈속가티八百頁의全卷을讀破하얏다。더욱閨房의秘密을여기까지親切히가라처준것은大膽히感謝한일이라고생각한다。

나는、이冊이、널리읽혀짐으로써 그만큼 結婚의不幸이적으리라는것을 밋고疑心치안는다。未婚者나、既婚者나、男性女性을勿論하고、읽으면반듯이所得이만흔良書로서한번一讀해보기를바란다

〔全願에對答한待望의良書〕

山田わか

나는 오랫동안「女性相談」解答을擔任하고、多數한婦人들에 各樣各色의煩悶을 打開 하여주엇스나、그秘密은、新聞雜誌上으로는、公開하는것을忌避하는일이만흠으로、어떠케適切한相談書가出現되기를希望하고잇섯든바「花嫁さん全集」이出來하야、나의宿願을滿足식혀주엇슴을 眞心으로 깃버하는 바이다

여러분이이冊을一讀하면、모름직이「相談」을하고저하는問題는업스리라고밋는다。이意味에서全國家庭에꼭一冊을推薦하는것이다。

全家庭에꼭一冊!이라고 떠드는소리가擡頭하야、日本出版界未曾有의大賣行!書店은賣切되기前에大騷動!이豪華한附錄은 사보지안으면大損이니急히사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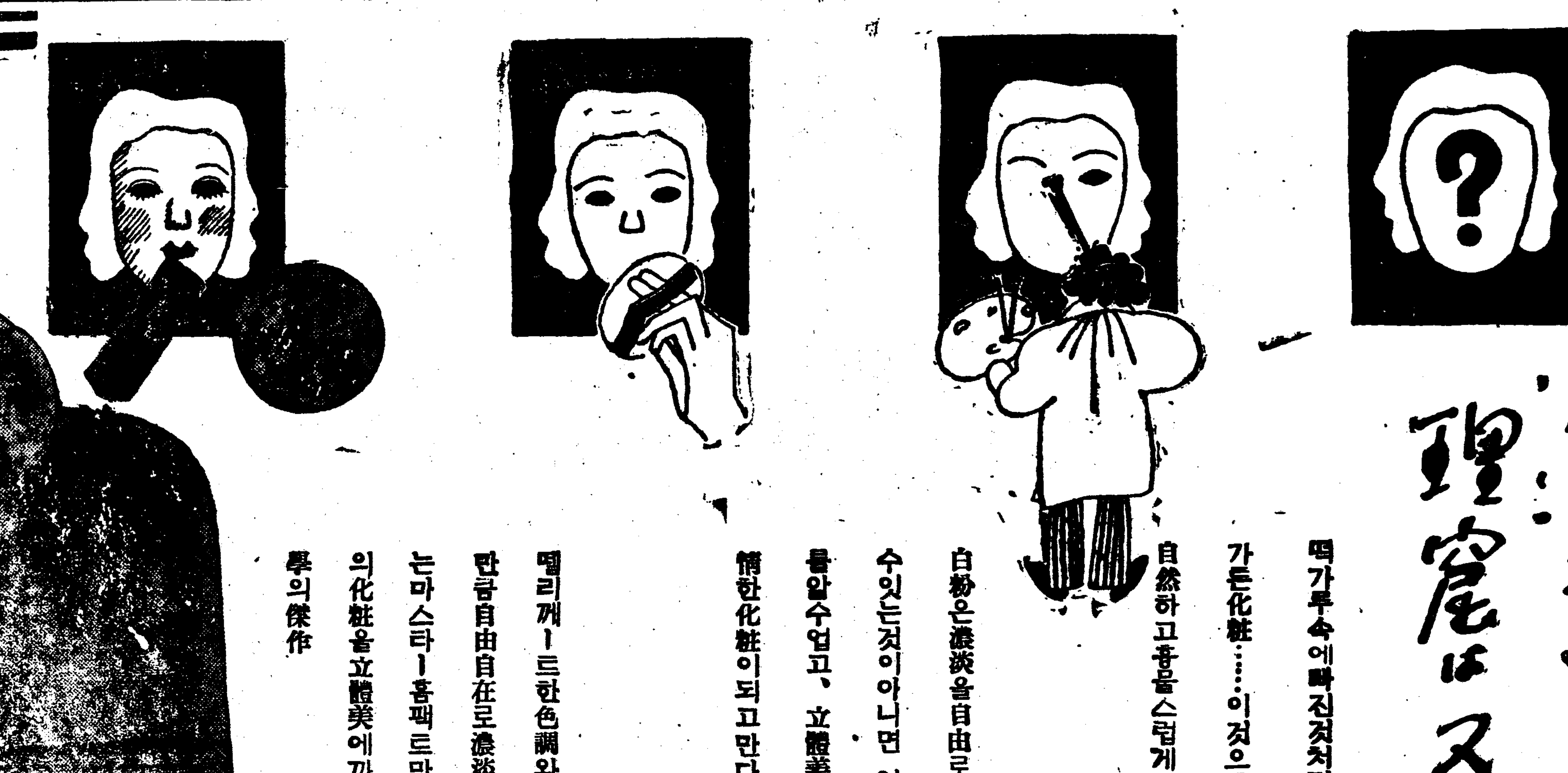
大特價八十錢(送料十七錢)

東京神田主婦之友社(振替一八〇)

マスターパクト

마 스 타 ー 홈 빡 트

ホーム



化粧効果は 理窟は又…

떡가루속에빠진것처럼、희ㅅ박가든化粧……이것으로는第一不自然하고흉물스럽게보인다

白粉은濃淡을自由로히하야바를수잇는것이아니면 얼골의 高低를알수업고、立體美가업는無表情한化粧이되고만다

멜리께ー트한色調와喜悅이넘칠만큼自由自在로濃淡을만들수잇는마스타ー홈팩트만은朝鮮女性의化粧을立體美에까지잇는그科學의傑作

二重色化粧其他美容上에잇서서 疑問되는것이잇스면、返信料添附하야左記로問議하라

東京市麴町區有樂町 [illegible] 美容相談部

飢寒의脅威急迫 絕糧者萬餘名

草根木皮로서僅僅保命하는 宜寧郡民의悲慘狀

【宜寧】경남 의령군에서는 금번수해로 한이삭의 수확을하지 못하고 산과들에나가 나무껍질과 풀뿌리를 캐여먹고 그날그날을 연명하는 절량자가 재지 일곱면에만 이천이백여호로 날시는 점점 치워오는데 한품의 식량을 갓지못한 일만여명의생도가 퍽이나 걱정스러우며 그외 여섯면도 도열병과 바람으로인한 수확의 감수로 절량자가 상당히 만흔모양이며 그들의 사활문제인만큼 시급구호를 요망하는바 면별절량호수는 다음과갓다

面名	絶糧戶數	人員
宜寧面	二〇〇戶	一、〇〇〇人
華井面	二〇〇	一、〇〇〇
龍德面	二八〇	一、四〇〇
正谷面	二〇七	一、〇三五
芝正面	五〇〇	二、五〇〇
洛西面	五〇〇	二、五〇〇
富林面	三六〇	一、八〇〇
計	二、二四七	一一、二三五

原料購入難으로 副業奬勵도難望

별항보도한바와가티 시급구제를 요하는절량자가 만여명에달하는바 소량의 식량배급은 물론장기적구제책으로 당국에서는이의 항구적구제책으로 다액의 보조를하야 가마니와 돗자리(蓆子) 등의 부업을 장려하기로한다함은 다행이나 기실 재지 일곱면은 벼농사의 전멸로집(藁)이 부족하야 개즙(改葺)치못한 가옥이 칠할이상이나되며 만약 타처로부터 집을 사드려 직조한다면 매개삼사전의 결손이나리라하니 조은성적을 바래기어려운바다 거반 군당국에서 도에신청한 궁민구제급 재해복구공사비가 이십만일천사백륙십원이라하니 상사관청에서 재고하야 천부업자의 손을것지지말고 면직영으로 긔공한다면 그공임(工賃)으로써 태면 맥추까지는무난히 사러가리라하야 일반군민의 욕망하는바며 공사개소는 다음과갓다

窮民救濟工事(道路及河川) 種別	豫算金額
宜寧智水線(宜寧面)	九、九〇〇圓
同(華井面)	九、九〇〇
龍德宮柳線(龍德面)	七、九二〇
栖谷代山線(芝正面)	一一、八八〇
富林洛西線(洛西面)	三、九六〇
同(富林面)	一一、八八〇
栖谷代山線(栖谷面)	七、九二〇
堤防改築費(宜寧面)	五〇、〇〇〇
堤防改築費(富林面)	二〇、〇〇〇
計	一三三、三六〇
復舊工事費	六八、一〇〇
總計	二〇一、四六〇

南海產組理事 後任問題惡化

所得업시散會

【南海】거보=금월이십사일 남해산업조합(南海産業組合)총회가 가설회의장(假設會議場)에 이천여명조합원이 출석하여 후임리사 선거를 위한 조합원대회가 열리엿는데 의장이 회의벽두에도 당국에서 내정한리사 리규조(李圭祚)씨선거문제가 일어나자곳 대회는 수라장으로 화하야 의장인 조합장은 사임을 선언하고 퇴석하자 군수의도의 의사를 대변하는연설도 수포에도라가고 일방경관이 출동하야 회석의 소동을 진압하얏스나 대회는 일체진행이 업다가 오후오시 필경대의원에 응하는형식으로 삼십팔명의 투표의원을 선출하얏는데 군수는 다시위원을 동조합사무실에 불러모아노코도 당국방침에 관한이약이가 잇자 위원중에서 군수는의장이 아니니 회원을 올린거밀라고 도당국의 주장한고지하고 민의를무시한 심야주민의 모욕이라고 항의를남기고 투표를 행하얏는데 그결과 정인환(鄭寅煥) 최용근(崔容根)등씨가 동표(十三票)로 선거되니 당일 회의에 출석한 도속 정상훈(鄭相勳) 김희명(金熙明)량씨는 다시 위원에게 항하야 이선거는 지사가 승인치안흘것이요 또 이번 도의 방침이 와해되면 전선조합의 존망이 달렷다고 운운하야 량해를 구하얏스나 일우지못하고 회의결과발표도업시 폐회선언도업시 밤이 기퍼짐에따라 자연 해산이되엿는배 도당국의 방침으로 일관한다는 주장의 부산이 이와가튼 불평과 암담한 결과를이르고 일반은 매우 분개한다고한다。

夜學할곳업서 二百兒童彷徨

【梁山】경남 양산군 량산시(梁山市) 내에서는 거금삼십년전부터 지방유지 인사들의 노력으로 무산아동의 교육기관인 량산로동회(梁山勞働學校)를설립하야 꾸준한성적으로 지난만추한판에서 싸워오든바 지난만추에 그교실전체가 여지업시 문허지고 마럿슴으로 목하는 배우랴는 이백여명아동은 날마다 생도의 노력으로 배움에 기갈이 심한 시내여 일백여아동들은밤이면 가두에 방황하면서 끈임업는저주성은 뜻잇는자로서 그대로볼수업다고한다。

奉化物野面强盜 格鬪끄테逐就縛

奉化署에서嚴取調

【榮州】한동안 영주군부석면(榮州郡浮石面)에 출몰하든 강도사건이 아즉것 오리무중에 잠기엿든바지 난십칠일에는 봉화군물야면개단리(奉化郡物野面皆丹里) 추서사(鷲棲寺)에나타나서 주지 우두환(禹斗煥)에게하로밤쉬여가겟다하고돌연히고초가루를주지의두눈에뿌리어서압흘못보게하여노코곤봉(棍棒)으로 위협하얏스나 마침현금이 업섯스므로오랫동안 위협하다가 의류등(衣類等)만을 강탈도주하엿다는대이 급보를 접한봉화경찰서에서는일방리근각지에 수배하는동시 불면불휴로 범인체포에 전력을경주하든바 지난이십일일에 명호면 주재소 윤、장(尹張)두순사의손에 걸리어서 약사십분 동안이나 격투하다가 전기두순사는전치사주일의 중상을당하면서 맛친내 체포하야방금봉화경찰서에서 취조를 거듭하든바 지난이십오일에는 동서정사법주임(鄭司法主任)이 권형사를대동하고 전기범인을대리고 영주군부석면(榮州郡浮石面)의 피해를 림검코자 출발하엿다는데 범인은주소불명의 박영하(朴永夏)로서 봉화와 영주등지로도라다니다가 체포된것이라한다

二人組强盜出現

소판돈을强奪逃走

【大邱】지난번수해로 말미아마 일반리재민은 당국의 긴급구제가잇난후로부터 먹을식량이 떠러저 방금사선에직면하야잇다 이로말미아마 일반인심은 날로흉흉하야감으로 이번가을에는 도처에 강도사건이 빈발할것을 예상하엿든바 발서부터 경북도내는 예상한이상으로 각처에강도사건이련발하야 경찰관은 신경을더욱 날카롭게하고잇다 얼마전에 의성(義城)봉화(奉化)그외수개처에 강도사건이 발생하지불과수일만에 달성군해안면(解顔面)에 또강도가 낫하나서 현금을강탈하고 상해를입힌후에 도주한사건이잇다

해안면부동(釜洞)정재달(鄭在達)은 이십오일오후네시쯤대구로와서 소한머리를 팔십륙원에 파라가지고 집으로도라가든도중 오후여덟시쯤 부동의압들 정상과수원(井上果樹園)부근의 소로를 통행중 두명의 강도가 낫하나서 몽둥이로 무수란타하고 현금을 강탈도주하엿다

사건이발생한지 약두시간만에 피해자정이 동촌주재소에 신고하야왓스므로 곳대구서에서는비상소집하야 필사적으로 활동한 결과 이십륙일 오전열시쯤 진범인 동촌(東村)출생서래이(徐台伊)(三)와문명조(文明祚)(三)등을 각각범인의집에 잠복하야잇는것을 체포하야 방금엄중히 취조중이라한다。

平壤府尹과 西電專務呼出

遞信局에서

【平壤】평양부가 서전(西電)에 대하야 매전료금(買電料金)감하를 교섭하엿스나 신통한 결과를 보지못하고 오늘까지에 이르럿는데 돌연 총독부에서시야(矢野)평양부윤과길전(吉田)서전전무를 전보로 부르게되여일대주목을 끄으는가운데에서 이십사일밤 각기상경햇다

총독부에서 쌍방의 대표자를 전보로 부른것은 평양부의요구대로매전료률감하하도록 조정을 할의사잇기도하나그반면에전과를 제문제에관하여평양부전을서전에병합할방책을진척히려는것이 아닌지도알수업서 이십만부민의신경은 극히예민해진 가운데에서 그결과를 전망하고잇다

地方人事

◆朴海元氏(前統營公普訓導)閑山公普校 赴任人事次 本報統營支局來訪

男性호르몬의重要性

男性의特質과 性호르몬의作用

一般的으로호르몬 이라하면 일반性호르몬을 말하거니와 性호르몬은 生殖腺에서 分泌되는 內分泌物로서 男性을 男性답게 하고 ……

性호르몬은 人體의 活力의 源泉이며 ……

(眞의中性化、女性化를參照)

生○器缺陷과 性호르몬의缺乏

性호르몬은以上과가티重要한것이며 ……

去勢한雄鷄

去勢되고도卵巢를移植하야 女性化한雄鷄

性器短小(發育不全) 性的衰弱(機能障害)

이것만은男子의最大不幸 여기에그唯一한療法이잇다

◇靑年期에잇는 性的缺陷者만큼 世上에不幸한일은업다。第一 남과가티 妻帶할資格도업고、人生의맛을 모르게된다。그뿐일까 肉體的精神的으로不具者가되여可惜하게도前途를埋葬하고말게되며 男子로태여나、이러듯不幸한일은 다시업슬것이다。

◇世上에性的缺陷者는 悲觀한 끗헤 肉體의不幸에울고잇는사람이 적지안흔듯한데、米國醫科大學敎授 ホリック博士의손으로 그唯一한療法이發見되여、이것을 基礎로 完成한 ホリック眞空水治器』의出現은一般的缺陷者의 天惠的福音이라고하지안흐면안된다。

◇從來藥療手術이따르지못하는點에對하야는物理應用의世界的發見이여서그作用은、眞空吸引과水治効能을併用하고、衰弱性器에 新鮮한血液을多量으로流集식히고 同時에理學的エンツデユン作用으로 細胞의蘇活發育을圖謀하며 性호르몬의分泌旺盛을促進식히고 機能을整調를게하는故로短小、屈曲性器는漸次發育長大하게되는一便、不自然行爲、過淫等에基하는 機能障害와 性的神經衰弱에依한 陰萎、早漏、遺精夢精等을回復식히는偉大한 効果를 發揮한다

◇또는 本器는個人의秘密使用에는最適한 小型堅牢使用法簡單한安全療器로 使用一回마다 그効果는너무나顯著하다

이미醫學博士五十餘氏가 그的確한効果를證明推奬한바이며 지금에는海外에까지聲價를날리고잇다

圖入冊子無代進呈 더욱 細詳한것은葉書로申込次第說明書『性の知識』를匿名密送한다

醫學博士五十餘氏實驗證明推奬

登錄商標 ◆ホリック眞空水治器 金五圓 送料 內地 二五錢 植民地 五五錢 ‖說明書添付‖

包莖 ◆ホリック包莖安全器 (切斷하지안코自手로矯正하야成形한다) 金一圓 送料 內地 一五錢 植民地 二五錢

代金引換小包는 各送料十五錢增

◎効果不完全한模造品이잇다 꼭 ホリック眞空水治器를請求하시오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東京 新療法研究所 電話芝三三一 振替東京七七三九

婦人良藥 中將湯

主効: 腰足冷症 下腹疼痛 神經衰弱 帶下 逆上頭痛 月經不順 子宮病 肩凝 産前産後

¥ .20 ¥ 3.00 / ¥ .50 ¥ 5.00 / ¥ 1.00 ¥ 10.00 / ¥ 2.00

本舖 株式會社 津村順天堂

好運을即席에서아는 クラブ化粧品福引大賣出し

京本染千代田錦紗三千反贈呈

全國一齊 クラブデー(구라부데이)

賣出期間十一月부터十二月末日까지 クラブデーポスター揭出の店で開催中

구라부化粧品을 五十錢 買上하시면、幸運券을一枚進呈! 이好機를逸치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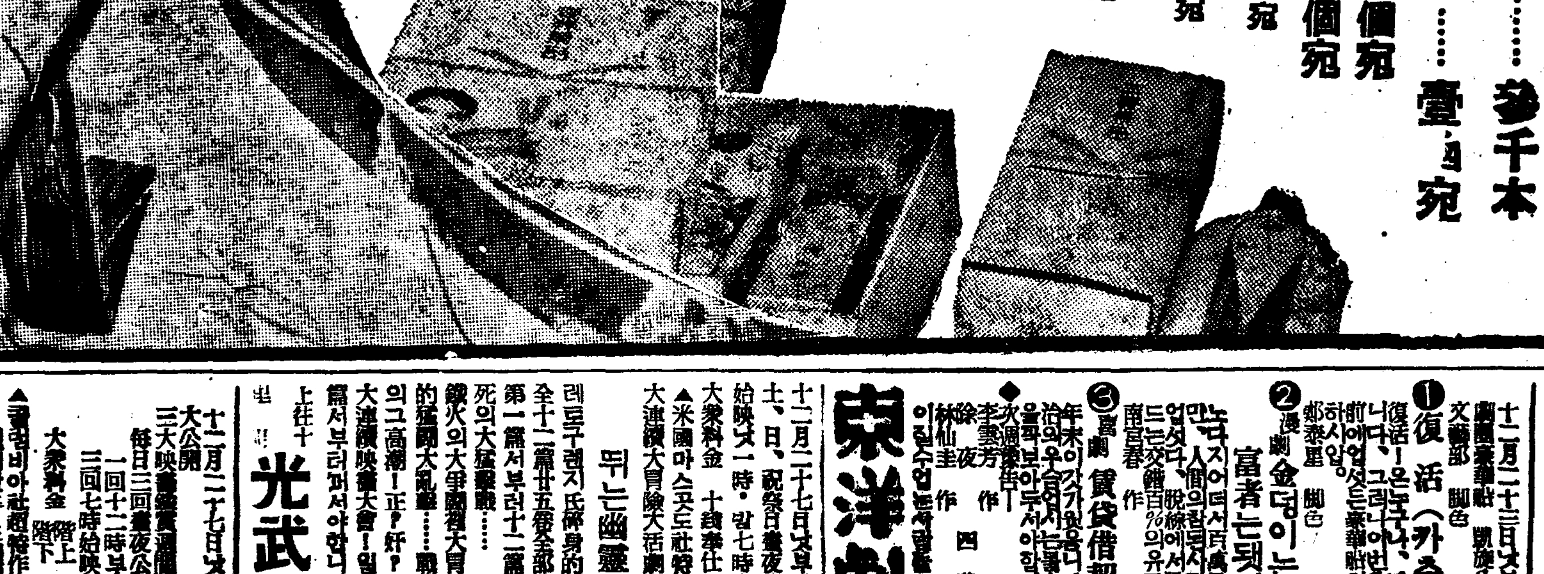
구라부데ー이期間中、구라부美身크림、구라부白粉、구라부齒磨、구라부비누、구라부洗粉其他구라부化粧品이면어느것이든지五十錢以上買上하는분께 幸運券一枚를進呈합니다。

燦然한豪華景品

- 特等……京本染千代田錦紗……參千本
- 壹等……クラブ化粧品詰合函……壹,宛
- 貳等……クラブ乳液……壹個宛
- 參等……カテイ洗粉 六包入……壹個宛
- 四等……クラブ美の素石鹸(大形)・クラブプラクーム(中瓶)……壹個宛
- 五等……クラブ煉齒磨(小)・クラブ美身羚白粉(普)・半煉クラブ齒磨(小)……壹個宛
- 六等……クラブクリーム(普及瓶)・クラブ洗粉(試用袋)・クラブ刷白粉(普及形)……壹個宛

景品을引換하는方法은……

一等으로부터六等까지 販賣店頭에서 即席에引換합니다 特等券을바든이는 住所氏名、年齡을記入하야 特等券을本舖로보내면 特等景品京本染千代田錦紗를 當籤者의 年齡에相應되는流行品으로選定하야 本舖에서直接付送하여드립니다



ワカゲキ 廿八日限り パラマウント 生きてゐるモレア ノエル・カワード主演 / ロイドの牛乳屋 ハロルド・ロイド主演 / 廿九日より 或る日曜日の午後 / 妻の凡てを フレドリック・マーチ主演 / 白い友情 / 眞珠の頸飾 マレーネ・デイトリッヒ主演 / 三〇セン均一

十二月廿六日부터 毎日晝夜二回 ◇東日・大每國產ニュース ◇特輯全發聲版 ◇廿世紀폭스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人情活劇 男子의魂 全八卷 主演 비라마크렌氏 에드만・로ー氏

新富座 新堂町 十二月二十三日낫부터 劇團豪華船 凱旋公演第一週 文藝部 脚色 ①復活(카추샤) 四幕 ②漫劇 金덩이는건저서 富者는됏지만 五景 ③喜劇 賃貸借契約 一幕 ◆次週豫告 李雲芳作 除夜 四幕

東洋劇場 十二月二十七日부터 二日間 土、日、祝祭日晝夜二回 始映낫一時・밤七時半 大衆料金 十錢奉仕 ▲米國마스코트社特作全發聲映畫 大連續大冒險大活劇 뛰는幽靈大會 全十二篇廿五卷全部上映 第一篇서부터十二篇까지에 大連續映畫大會! 일즉오서서第一篇서부터꼭보서야합니다

光武劇場 十二月二十七日낫부터三日間 大公開 三大映畫豪華選 毎日三回晝夜公演 一回十二時부터 二回三時半 三回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傑作篇 怪傑데아부로 ▲松竹蒲田超特作品 靑春明朗篇 戀愛一刀流 主演者 川崎弘子 伏見信子 日守新一 ▲英國부리티쉬社作品 混線夫婦

第一劇場